연중 제21주일 강론(2019년 8월 25일)

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

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“구원 받을 사람은 적겠습니까?”하고 물어봅니다.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시대,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온 질문입니다. 진짜 몇명이나 구원될까요? 한 만 명쯤? 아니면, 십만? 아니면 백만?

예수님은 “‘좁은 문’으로 들어가라”고 하시면서, “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”이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“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될 것”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이 아주 기막힌 말씀입니다. 인간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.

구원으로 이르는 ‘문’은 사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지만, 그러나 그 문이 좁다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. 과연 이 ‘좁은 문’으로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?

어제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, 우스갯소리로 이런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. “다같이 하늘 나라에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.” 그런데 하늘 나라에 가면 아는 사람들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하늘 나라에서 서로 알아 보게 되면 난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서로 알아보고, “어,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왔지?”하고 말할 수도 있고, “어, 그 사람은 여기 못왔네~” 혹은, “어 신부님도 못 오셨잖아!”할 수도 있습니다. 결론은 “하늘 나라에서는 서로 못 알아 보는 것이 더 좋겠다”는 겁니다.

웬수 같은 부부가 평생 함께 살다가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.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? 좋아하기도 그렇고, 안 좋아 하기도 그렇고… 모처럼 하늘 나라에서 새출발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요?

반대로 지옥에서 혹시 만나서 서로 알아보면 난감합니다. “아이구, 저 인간도 여기 왔네!” “아! 저 인간! 여기 올 줄 알았어!” “어~ 저기, 신부님도 여기 오셨네~” 그때는 서로 모른척 해야 합니다.

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‘좁은 문’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을지,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, 또 저 인간은 갈 수 있을지, 참 궁금합니다. 그런데, 남들이 그 ‘좁은 문’으로 들어가든 말든 남 신경쓰고 지켜보기 보다는, 나는 과연 그 ‘좁은 문’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.

우리들이 늘 쉽게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는요~ 남들은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면서, 정작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잘 못합니다. 그 ‘좁은 문’으로 아마 저 사람들은 못들어 갈거라고, 남들 평가하기 보다는 정작 내 자신이 그 ‘좁은 문’에 합당한지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. 한 마디로 말해서 “남들 흉보지 말고, 너나 잘 하세요!” 입니다.

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‘좁은 문’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. 이 ‘좁은 문’은 사실 문 자체가 좁다기 보다는,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들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.

만화 챨리 브라운 아십니까? 스누피와 함께 나오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어리석은 꼬마 캐릭터죠.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캐릭터입니다.

하루는 이 챨리 브라운이 스키를 타러 갑니다. 아주 두툼한 스키 잠바를 입고, 큰 털모자를 쓰고, 커다란 부츠와 커다란 장갑을 목에 겁니다.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폼이 납니다. 그리고 스키와 스키 폴대를 어깨에 엑스 자로 멥니다. 멋지게 미소를 짓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서 또 어깨에 매고, 그리고 뭔가 빠졌나 곰곰이 생각하더니, 아차 하면서, 조그마한 구급상자를 또 가져와서 목에 겁니다. 옳거니 이제 완전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, 문제는, 몸에 걸친 두꺼운 옷과 너무나 많은 장비들 때문에, 문을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. 빠져나가려고 낑낑거리다가 다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말죠.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장비들을 보니까 하나도 두고 갈 것이 없습니다.

이것이 ‘문이 좁다’는 의미입니다.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늘 나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짐, 저 짐, 다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갑니다.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. 그 많은 짐들 다 싸들고, 또 고집, 자존심, 교만, 지난 날의 상처, 분노, 슬픔, 다 짊어지고 갑니다. 몸과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. 그렇게 바리 바리 다 싸가지고, 어떻게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!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몸과 마음을 다 가볍게 해야 합니다.

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. “저는요, 봉사도 열심히 하구요, 기도도 열심히 하구요, 주일 미사에도 한 번도 안빠졌구요, 피정도 열심히 다녔었구요. 저는 성당일이라면 모르는게 없어요. 저는 당연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? 저는 당연히 구원 받겠지요?”

봉사, 기도, 미사, 피정 많이 했다고, 다 구원될까요? 교회 역사, 교리, 성경 등등 아는 거 많다고 다 구원될까요? 그 옛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, 경건하고 신심 깊게 살았습니다.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무조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스스로 자랑했었습니다.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“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. 잘 들어라.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.”

그들은 그렇게 잘 난 사람들이었는데,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, 왜 구원의 문에 들지 못했을까요?

내 삶이 변해야 합니다. 마음 안에 사랑이 없고, 기쁨과 행복이 없고,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,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, 피정 많이 다니고, 아는 것 많다는 것으로, 절대로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 갑니다. 아무리 겉으로 신앙심이 깊고 경건해 보여도, 마음 속에 분노와 교만, 고집과 편견이 가득차 있으면, 절대 하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 문은 좁기 때문에 버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

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,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길입니다. 힘든 길입니다. 왜냐면, 버리기 힘든 것을, 버려야만 들어 갈 수 있는 길이고, 몸과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워야 들어 갈 수 있는 문입니다. 내 안에 들어있는 자존심, 고집, 교만 등을 버리는 영적인 여정은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. 예수님은 “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”고 말씀하십니다. 그 길은 참 사랑의 길이고, 참 평화의 길이고,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.